



# 대전주보

연중 제12주일  
| 2026년 6월 21일(가해)

2025-2028 사목교서 표어 | 성사 은총 안에서 형제 공동체인 교회 복음을 전하며 피조물을 돌보는 교회



논산부창동본당 공동체 / 2023년

**제1독서** 예레 20,10-13

### 화답송

- ◎ 주님, 당신의 크신 자애로 제게 응답하소서.
- 당신 때문에 제가 모욕을 당하고, 제 얼굴이 수치로 뒤덮였나이다. 저는 제 형제들에게 낯선 사람이 되었고, 제 친형제들에게 이방인이 되었나이다. 당신의 집을 향한 열정이 저를 불태우고, 당신을 욕하는 자들의 욕이 저에게 떨어졌나이다. ◎
- 주님, 저의 기도가 당신께 다다르게 하소서. 은총의 때이옵니다. 하느님, 당신의 크신 자애로 제게 응답하소서. 당신은 참된 구원이시옵니다. 주님, 너그러우신 자애로 저에게 응답하소서. 당신의 크신 자비로 저를 돌아보소서. ◎
- 가난한 이들아, 보고 즐거워하여라. 하느님 찾는 이들아, 너희 마음에 생기를 돋우어라. 주님은

불쌍한 이의 간청을 들어 주시고, 사로잡힌 당신 백성을 멸시하지 않으신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늘과 땅아, 바다와 그 안에 사는 모든 것들아. ◎

**제2독서** 로마 5,12-15

### 복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진리의 영이 나를 증언하시고 너희도 나를 증언하리라. ◎

**복음** 마태 10,26-33

### 영성체송

주님, 눈이란 눈이 모두 당신을 바라보고, 당신은 제때에 먹을 것을 주시나이다.



대전교구대회 2027.7.29~8.2

D-403

신학교 지원반 모임  
7월 5일(주일) 오전 10시 30분  
교구청 명례방





서용원 다미아노  
대덕구장에인종합복지관장

“마고르 미싸빔(מִיָּסַרְתִּיךָ)”을 사자성어로 표현한다면 그렇게 됩니다. 사방에서 닥쳐오는 혹은 밀려오는 공포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진퇴양난이 될 수도 있겠고 ‘옴짝달싹 못하다.’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어떤 일을 하다 보면 그런 상황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또 살다 보면 그런 상황이 오나 봅니다. 저도 5년의 특수사목을 하며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예기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면 당황하며 며칠을 끙끙 앓은 적이 많았습니다.

오늘 복음인 마태오 10장 26절에서 33절은 복음서 중간에 위치하며 앞부분에 놓여 있습니다. 더불어 오늘의 부분은 ‘제자들의 사명과 박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파견하시며 앞으로 닥칠 박해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선포하라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공생활 동안 이어질 여러 위기와 어려움을 용기와 지혜와 믿음으로 이겨내라는 선행학습과 같습니다.

연중 제12주일 복음에 앞서서 제1독서인 예레미야서는 시편 31장 14절을 떠오르게 했습니다. “정녕 저는 많은 이들의 비방을 듣습니다. 사방에서 공포가 밀려옵니다. 저를 거슬러 그들이 함께 모의하여 제 목숨 빼앗을 계교를 꾸밉니다.” 이

표현에서 예레미야가 매우 곤란한 처지와 상황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마고르 미싸빔”이라며 표현하는 대적자의 조롱에도 그저 다윗 임금과 같이 ‘의지할 곳은 하느님뿐’이라며 고백합니다. 이렇게 하느님의 정의에 의지하며 소리치는 예레미야의 고독한 외침은 오롯이 하느님을 향한 의탁에 정조준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사도는 여러 차례 자신의 신분이나 능력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의지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도구이며 질그릇이라 칭했지요. 마찬가지로 오늘 제2독서에서는 하느님이 주시는 은사의 무한함에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아담을 통한 결과와 그리스도를 통한 결과의 값을 비교하면서 말이지요.

2021년 12월 16일 주교님의 명령을 받고, 다시 특수사목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 손에 주어진 상황을 탓했습니다. 주변 환경에 대한 불만을 끊임없이 되풀이했던 것이지요. ‘조금 더 준비됐었더라면... 본당을 한 번 거쳐서 왔더라면...’ 그러나 기억해 보니 준비되지 않고 어려웠던 상황에 도와주었던 여러 사람이 있었습니다. 처음치고는 가기 어렵던 길들을 놀랍게 넘어왔던 사건들이 꽤 있었습니다.

과연, 내 기준은 무엇을 지향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사순 시기를 지나 부활 시기도 지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연중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수적인 기준은 의탁이고 우리의 삶은 하느님을 담은 그릇이어야 한다는 신념을 깨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삶의 모든 순간을 ‘사면초가’로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마고르 미싸빔(מִיָּסַרְתִּיךָ)!”

## 1면 본당 공동체 소개

논산부창동본당 공동체 <본당의 날 전 신자 성지순례 - 신리성지> / 2023년



100년이 넘는 신앙의 전통을 간직한 논산 부창동본당(주임 김창선 신부)은 논산시 향토문화유산 제50호로 지정된 본당으로, 루르드의 성모님을 주보성인으로 모시며 깊은 신심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전 신자가 함께하는 ‘심’ 피정을 통하여 신자 간 친교를 증진하고 영적 쇄신과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며, 더욱 일치된 신앙 공동체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 편리하지만 결코 값싸지 않은 플라스틱 사회

조세종 디오니시오 대전교구 생태환경위원회

플라스틱 생산량은 이미 연간 4억 톤을 넘어, 앞으로도 끝없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1인당 플라스틱 소비가 OECD 2위에 이르는 상위권 소비 국가로, 배달 문화, 소포장, 일회용 중심 유통 구조가 플라스틱 사용량을 급격히 증가시켜 왔습니다.

자연은 인간의 속도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15분 동안 사용하는 비닐봉지는 분해되기까지 500년이 걸립니다. 플라스틱 병은 바다에서 수백 년 동안 미세플라스틱으로 쪼개진 채 남아있게 됩니다. 매년 1,200만톤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다로 흘러들고, 해변마다 물티슈, 플라스틱 병, 비닐봉지 등이 셀 수 없이 밀려옵니다.

플라스틱 제품 가격에는 바다 오염 비용, 생태계 파괴 비용, 폐기물 처리 비용, 건강 피해 비용 등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비자가 편리하게 쓰고, 기업이 부담하지 않은 플라스틱의 '싼 가격'은 실제로는 사회 전체가 부담하고 자연과 바다 생태계의 치명적 손상으로 떠안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가격입니다.

'재활용률이 높은 나라'로 평가되는 우리나라도 '수거비율'이 60%로 높다는 것이지, 다시 사용하는 '재활용비율'은 20%로 높지 않습니다. 혼합재질, 오염된 플라스틱 등이 재활용되지 않기 때문에 '재활용을 잘하는 나라'라기보다 '플라스틱을 많이 쓰는 나라'일 뿐입니다.

더 많은 판매와 더 빠른 소비를 요구하는 기업과

시장에게 플라스틱은 가장 적합한 소재입니다. 싸고 가볍고 대량 생산이 가능한 일회용품과 배달산업, 과잉 포장에 이러한 흐름을 극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음식 한 끼를 주문하면 플라스틱 용기와 비닐, 수저, 소스 포장이 함께 따라오고, 샴푸나 화장품 역시 개별 포장과 소용량 제품 중심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활용률을 높이는 것만으로 부족하며, 생산과 소비 자체를 줄이는 전환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더 많이 재활용할 것인가'가 아니라 '애초에 얼마나 덜 만들 것인가'에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생산자 책임을 강화하여, 기업이 제품 생산 이후의 폐기 비용까지 부담하도록 해야 합니다.

싸고 편리한 소비에 대한 인식도 자연과 지역의 순환, 자원의 절약, 오래 사용하는 방식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더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에코백과 텀블러 사용은 단순한 생활 습관이 아니라, 일회용 중심 경제에 대한 작은 저항이자 변화의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플라스틱 문제는 단순한 쓰레기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플라스틱은 우리가 자연의 한계를 넘어서 소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플라스틱은 가벼움과 편리함만을 누리는 체계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음을 경고하는 시그널로 바다 위에 끝도 없이 떠다닙니다. 편리함의 속도를 자연의 순환 속도로 회복하는 삶을 위해 기도하고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는 플라스틱 쓰레기 줄이기

- 유병숙 베로니카(서산 소비자기후행동)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 | 생태환경위원회

해변에서 플로깅(걷거나 달리며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하다 보면 화단에 숨겨진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종종 발견하게 된다. 함부로 버리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기에 몰래 숨겨 둔 것이다. 부끄럽다. 그런 행동보다 더 부끄러운 것은 편리함을 위해 일회용 플라스틱을 너무 쉽게 소비해 온 우리의 삶이다. 수많은 플라스틱 쓰레기들은 바다로 흘러가 거대한 쓰레기섬을 만든다. 해양생물들은 이를 삼키고 결국 죽어간다. 잘게 부서진 미세플라스틱은 해산물을 통해 우리의 식탁에 오르고 인간의 몸속에 쌓이고 있다. 바다가 병드는 것은 단순히 쓰레기 몇 개 때문만은 아니다. 그 근처에는 인간의 탐욕과 무분별한 개발이 있다. 바다 깊은 곳의 망간·니켈·코발트 등을 채굴하려는 심해 개발, 바다를 생산 공장처럼 이용하는 대규모 양식업, 이른바 바다목장에서 버려진 수많은 플라스틱 부표와 어망, 어구들은 바다 생명을 위협한다.

"찬미받으소서"는 공동의 집을 돌볼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말한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재사용을 생활화하는 작은 실천과 함께, 플라스틱 감축 정책, 폐어망 회수 시스템, 친환경 양식 전환, 해양보호구역 확대, 심해 채굴 규제와 생산자 책임 강화 같은 사회적 노력이 함께 이루어질 때 우리는 바다와 미래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 책임 있는 선택이 절실하다.

# 유사종교와 가톨릭 신앙 비교알기

## ‘하나님의 교회’의 실체(2)

• 대전교구 유사종교대책위원회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장하는 잘못된 교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 1. 안식일(토요일)을 지켜야 한다?

‘하나님의 교회’는 토요일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태양신을 섬기는 로마제국의 풍습에 영향을 받아서 그렇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에서 일요일을 주일로 정한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안식일 다음 날’(주간 첫날), 즉 일요일이기 때문입니다.

### 2. 십자가는 우상숭배이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교를 상징하는 십자가를 우상숭배라고 주장합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승리와 그리스도 생명의 표지가 되었습니다(1코린 1,18; 갈라 6,14 참조). 십자가는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 3.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하나님의 교회’는 과거 유대인들이 지낸 유월절을 계승하고, ‘새 언약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합니다. 유월절(파스카)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 노예 생활로부터 탈출하여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유대인들의 축제입니다. 이 유월절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표지가 된 것은 예수님께서 최후 만찬을 통해 새로운 파스카, 곧 성체성사를 제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구약시대의 유월절과 신약의 새로운 파스카는 같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의 관습인 유월절(니산달 14일)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이루신 새로운 파스카 축제(부활 대축일)를 지냅니다.

### 4.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대처

하나님의 교회는 전도할 때 2인 1조로 다니며 길거리에서 “어머니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하고 물으며 접근합니다. 또 아파트나 주택을 돌면서 천주교 명패가 있으면 초인종을 누르고 호기심을 유발시켜 이야기하고, 성경 말씀으로 공개적인 포교활동을 벌입니다. 이때 관심이 없다는 점과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고 집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강력히 요구해야 합니다. 또한 평소 친분이 있는 지인을 통해 집회 참석을 권유받았을 때는 처음부터 단호히 거절 의사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준비와 연대의 해”

## 대전 DID를 향한 여정

\*DID: Days In the Dioceses(교구대회)의 약자

D-403 교구대회 : 27.7.29(목) ~ 8.2(월) D-408 본대회 : 27.8.3(화) ~ 8.8(주일)

대전교구대회 교구봉사자

‘이음(EUM)이’ 모집



세상과 교회, 청년과 그리스도를 잇는 이 소중한 부르심에 기쁘게 응답할 청년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대상** | ① 대전교구 내 거주하는 청년 ② 대전교구에 교적을 둔 청년 ③ 대전교구에서 활동하는 청년  
위 조건 중 1개 이상 충족하는 만 19세~만 39세 청년

**접수** | 6.30(화)까지 대전교구대회 홈페이지 접수

**면접** | 7.1(수)~20(월) | **선발** | 7.27(월)



교구봉사자  
지원서 QR



대전교구대회  
홈페이지 QR

**모집분야** | 행사 기획 통역 미디어 기록 홈스테이 관리 안전&의료 찬양&반주



**교구알림**

**대전민화위 'DMZ 평화기행' 신청 안내**

- 때 : 10.9(금)~11(주일) / 2박3일
- 곳 : 경기도 파주, 연천, 강원도 철원 등 DMZ 일대(숙박 민족화해센터)
- 신청 : 5.31(주일)~6.30(화) 선착순 30명  
- 신청서 메일(hk100@hanmail.net) 제출  
- 한끼100원나눔운동본부, 민족화해위원회 홈페이지 자료실 다운로드
- 참가비 : 1인 12만원
- 문의 : (042)636-1331 대전교구 민족화해위원회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 미사 안내**

- 때·곳 : 6.25(목) 19:00 주교좌 대흥동성당
- 주례 : 총대리 한정현 스테파노 주교
- 문의 : (042)636-1331 대전교구 민족화해위원회

**전담사목**

**젊은이 성령기도회 안내**

- 때·곳 : 매주 화 20:00 새일센터(지족로 306)
- 대상 : 교구 젊은이 누구나
- 내용 : 찬양, 말씀
- 문의 : (042)824-6773, 카톡플친[아자리아]

**대전교구 장애인 사목부 발달 선교회 미사**

- 때 : 6.27(토) 11:00 / 월레미사, 소모임, 식사
- 곳 : 장애인 사목부 (대덕구 오정동 334-16)
- 대상 : 대전교구 내 발달 장애인 가족 (대전, 천안, 세종, 공주 등)
- 매주 토 11:00 발달 장애인을 위한 미사 봉헌
- 문의 : (042)637-1838 장애인 사목부

**국립대전현충원 주일미사 안내**

- 때 : 매주 주일 오전 11시
- 곳 : 국립대전현충원 사무실동 종교집전자 사무실
- 문의 : 010-8875-2349

**본당**

**신상욱(토마스) 신부 금경축 감사미사**

- 때 : 6.28(주일) 10:00 미사
- 곳 : 산성동성당
- 문의 : (042)581-4990 사무실

**목동성당 성프란치스코 영성특강**

- 때 : 6.23(화) 19:00 미사 후
- 곳 : 목동본당 대성당
- 내용 : 김병수 대전안드레아 신부의 "성프란치스코의 시와 문학"
- 성 프란치스코 선종 800주년 특별히년 기념 특강

**대전교구 생활성가 시몬밴드 단원모집**

- 모집 : 남·녀 보컬, 키보드
- 자격 : 찬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20~40대 초반 천주교신자 소정의 오디오선후 선발
- 문의 : 010-8218-0429, 010-3980-3827

**교회 운동 및 인준단체**

**행복한 혼인 생활을 위한 제242차 주말ME**

- 때·곳 : 6.26(금)~28(주일), 수리치골 피정의 집
- 대상 : 혼인 2년 이상 부부(종교불문), 성직자, 수도자
- 문의 : 010-7643-1187, 010-2657-1187

**대전교구 전례꽃꽂이연구회 6월 월례회**

- 때·곳 : 6.29(월) 14:00~16:00 교구청 명례방
- 내용 : 전례특강미사(작품발표 - 연중(여름 제대 장식), 성모 승천 대축일)
- 문의 : 010-9982-8327

**파티마 세계사도직 (썸) 첫 토요일 신심미사**

- 때 : 7.4(토) 첫 토요일 성모신심미사 시작기도 10:00, 미사 11:00
- 곳 : 가톨릭문화회관(대흥동)
- 문의 : 010-2330-1634

**대전교구 체나콜로 월례 기도회 및 미사**

- 때·곳 : 7.4(토) 14:00~17:00 교구청 명례방
- 준비물 : 블루북, 미사준비, 개인컵(텀블러)
- 담당 및 미사 : 김경호 바오로 신부
- 문의 및 신청 : 010-9342-0201

**오기선요셉 장학회 정기미사**

- 때 : 6.23(화) 11:00
- 곳 : 천안신부동성당
- 미사집전 : 김경수 신부
- 문의 : 010-9894-8004, 010-8802-3860

**교구 내 기관 및 시설**

**2027학년도 논산대건교 신입생 모집**

- "가톨릭 정신으로 교육하는 논산대건고등학교"
- 자격 : 2026학년도 중학교 3학년 충청남도 소재 중학교 졸업 예정자
- 희망자 전원 기숙사 생활 가능
- 일반전형(134명) 외 가톨릭 지도자 추천(예비 신학생), 독서활동, AI 과학 수학, 리더십, 학교 생활표창, 동아리활동 등 특별전형(26명) 모집
- 입학문의 : (041)735-1968

**대전가톨릭대학교 직원 채용 공고**

- 모집 : 관리과 영양팀 0명
- 자격 : 우대사항(천주교 신자)
- 접수 : 7.24(금) 우편 및 내방접수
- 본교(www.datholic.ac.kr) 및 교구홈페이지 - 구인 홍보게시판 참고

**2026년 "대전가톨릭평화방송" 성지순례**

- 10.6(화)~17(토) 스페인, 파티마, 루르드 성모발현지 순례 (12일) 599만원 (대한항공)
- 위의 일정 외에도 성당이나 기관에서 원하시는 맞춤형 순례도 준비해 드릴 수 있습니다
- 문의 : (042)250-3200 대전가톨릭평화방송 (02)852-8525 분도여행사

**정신재활시설 햇살한줄 이용회원 모집**

- 대상 :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는 성인(20~60세)
- 이용시간 : 09:00~16:30 (월~금)
- 서비스 : 상담, 교육지원, 취업 및 자립지원사업 등
- 곳 : 대덕구 한남로 150번길 16, 2층(오정동)
- 문의 : (042)622-7018

**노인학대 상담 및 제보**

- 곳 : 서구 문정로170번길 103(보라삼거리 부근)
- 상담방법 : 내방, 방문상담, www.dj1389.or.kr
- 문의 : 1577-1389, (042)472-1389 대전노인보호전문기관

**교구 외 기관 및 시설**

**대전 밀레마니 문화영성 센터**

-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 캘리그라피, 이콘, 전례초조각(초/중/고급) 성가, 영성심리상담
- 카페 베타니아 수사님이 직접 로스팅한 갓 내린 커피와 새단장 오픈 베타니아 성물
- 문의 : (042)226-8185 서대전네거리역8번출구

<p><b>미즈의원난임센터</b> 산부인과 전문의 서영석(다미안) 산부인과 전문의 송민순(여의사) 탄방동673번지 T. (042)488-2255</p>	<p><b>척추·관절 허리사랑병원</b> 대표원장 : 김관태(바오로) 척추·관절 전문의 10인 진료 T. (042)528-7588 롯데백화점 옆</p>	<p><b>모두의 안과</b> 원장 : 이영훈, 진선영, 백승국(라파엘) 영등포 김안과, 건양대병원교수출신 망막, 녹내장, 백내장 중점진료 을지대병원 근처 T. (042)721-2211</p>
<p><b>정인국제결혼회사</b> 국내 국제 정식 허가 업체 조형원(베드로) T. 010-4331-6984</p>	<p><b>대전성모안과</b> 원장 : 박인철(미카엘) Since 1998 (전)우리성모안과 원장 (전)눈빛안과 원장 롯데백화점 맞은편 T. (042)533-0078</p>	<p><b>이안과병원 개원70주년</b> (의료법인 청운의료재단) 백내장, 녹내장, 망막, 시력교정, 안구건조 병원장: 신일환(베드로) T. (042)220-5500 대흥동성당 맞은편</p>

## 소식

### 국악성가 한발합창단 단원모집

- 지도 : 강수근 신부
- 지휘 : 황승현 대건안드레아
- 연습 : 매주(월) 19:00 가양동성당
- 문의 : 010-5452-5482, 합창단장 최재철

### 그리스도의 레지오수도회 성지순례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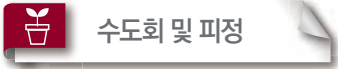
- 7월 : 캐나다 성모성지 9박 10일
- 11월 : 멕시코&칸쿤 성모성지 10박 11일
- 문의 : 010-5735-4578

### 2026 행복한 캠프

- 때 : 7.17(금)~19(토) 2박 3일
- 곳 : 양업고 (043)260-5076
- 대상 : 중학교 1~3학년
- 접수 : 7.7(화) 10:00 부터~(홈페이지 접수)
- 비용 : 15만원(접수완료 후 입금)

### 일본 가고시마교구 성지순례

- 곳 : 가고시마, 북해도, 아키타, 나가사키, 도쿄, 오사카 / 123만원
- 문의 : 010-3645-9028



### 수도회 및 피정

### 내적치유나 영적돌봄에 관심있는 분

- 26년 가을학기 임상사목교육(C.P.E.)프로그램
- 때 : 8.22(토)~12.19(토) - 평일반 or 토요일반
- 곳 : 섭리C.P.E센터
- 모집 : 선착순 8명
- 문의 : 010-8863-3637 천주섭리수녀회

### 향심기도 기초 및 심화 피정

- 때 : 7.3(금) 15:30~7.5(주일)점심
- 곳 : 논산 씨튼 영성의 집
- 문의 : (041)733-2992 논산 씨튼 영성의 집

### 젊은이를 위한 꽃동네 성령피정

- 때 : 7.31(금) 14:00~8.2(주일) 16:00
- 곳 : 꽃동네 사랑의 영성원
- 대상 : 중학생이상부터 미혼남녀
- 회비 : 15만원
- 문의 : 010-5490-5345

### 한국외방선교수녀회 ZOOM 기도모임

- 둘째, 넷째주 금요일 20:30~21:30
- 대상 : 20~40세 미혼 여성
- 문의 : 010-9353-1773

### 한국성모의자애수녀회 성소 상담

- 대상 : 수도성소에 관심있는 미혼 여성
- 곳 : 본원(경북 칠곡), 계산서원(대구)
- 개인 피정 가능합니다
- 문의 : 010-3265-6219

### 미래내 천주성삼성직수도회 성소자 모집

- 성모성심을 통하여 천주성삼계 영광을! 자신의 삶을 하느님께 봉헌하고자 하는 청소년 & 청년 남자 수도 생활 성소자를 모집합니다
- 문의 : 010-5195-3217 성소부

### 성 도미니코선교수녀회 피정안내

- 하느님, 바람, 나(힐링 피정) : 7.3(금)~5(주일)
- 효소단식 : 7.9(목)~12(주일), 8.4(화)~7(금)
- 성경완독 : 7.24(금)~8.1(토), 8.14(금)~22(토)
- 문의 : 010-3340-0201
- 황성 도미니코 피정의 집

### 수도 전통에 따른 렉시오 디비나 입문 피정

- 때 : 8.6(목)~9(주일)
- 곳 : 성 베네딕도 문화영성센터 (왜관수도원 내)
- 비용 : 42만원(1인 1실)
- 지도 : 허성준 신부 외
- 문의 : 010-4731-2468 (최 안나)

### 청주 초정성령회관 1박2일 치유피정

- 때 : 매월 마지막 주(토)14:00~(주일)14:00
- 곳 : 초정성령회관
- 회비 : 2만원(청소년 무료) 1박2일(3식)
- 셔틀버스 운행(조치원역, 청주고속버스터미널)
- 문의 : (043)213-9103, 010-5482-6744

### 곶솔라따 선교 수도회

### 해외 평신도 선교사 학교 교육생 모집

- 때 : 9.20~2027.6.20 매월 셋째주 주일
- 곳 : 곶솔라따 선교 수도회 대전 본원
- 지원자격 : 선교에 관심을 둔 평신도 누구나
- 모집인원 : 20명 / 9.15(화) 까지
- 접수 : 곶솔라따 선교 수도회 사무실
- 문의 : (032)345-9907, 010-8327-9907

### 산내·성환공원 묘원 봉안(납골)담 분양 안내

- 가격  
1인실 사용료 2,500,000원(산내)  
3,500,000원(성환)
- 관리비는 20년간 500,000원
- 문의 : (044)270-3030 교구청 관리국  
(041)546-7265 성환묘원 사무실



### 교구 가정사목부 프로그램 안내

- 신청 : 가정사목부 홈페이지 <http://familia.djcatholic.or.kr>
- 문의 : (042)256-5487~8

프로그램	때·곳	대상
태아와 산모축복(영유아) 미사	6.27(토) 10:00, 천안불당2동성당	임산부, 영유아
신혼부부를 위한 미사 (태아산모축복)	6.28(주일) 14:00 세종성요한바오로2세성당	신혼부부, 임산부, 영유아
혼인교리	7.4(토) 비대면	혼인을 준비하는 예비부부 수강료 : 커플 5만원



한끼100원나눔운동  
2026년 사랑의 온도현황

35.8°C

총 모금액 358,494,873원

[5.24~31 모금액] 24,084,097원

본당 : 6,488,390원 / 개인기관 행사 : 17,595,707원

<p><b>맑은눈 안과</b> 스마일수술, 라식, 라섹수술 백내장, 백내장 노안수술 녹내장, 망막, 황반질환 T.(042)476-0075 선사유적네거리</p>	<p><b>더 웰 피부과</b> 박장규(안토니오) 김형주(방지거) 유성정 T. (042)825-3045 유성운천역 6번 출구</p>	<p><b>행복나눔 이사</b> 사무실 이사, 포장 일반 이사 이종수(야고보) 김영숙(살비아) T. 1877-9924, 010-2575-2176</p>
<p><b>서산예천동성당 하늘쉼터</b> 대전교구 최초로 성당 내에 설치한 봉안당입니다. T. (041)668-2302, 010-4508-2302</p>	<p><b>성심당 70주년 전시 '오래된 진심'</b> 3F - 마음으로 품은 70년 4F - 빵으로 품은 70년 5F - 믿음으로 품은 70년 장소 : 성심당문화원 (은행동 본점 옆)</p>	<p><b>미카엘 여행사 성지순례</b> 9/7,10/13,11/10 제주도 3일 10/6 그리스, 튀르키예 12일 10/2, 11/17 나가사키 4일 10/2, 11/17 홍콩 마카오 4일 제주도 성지순례 전문여행사 T. 010-8650-9690 <a href="http://www.michaeltour.co.kr">www.michaeltour.co.kr</a></p>

성체 찬미가 연재 ⑥

## Ave Verum Corpus : 고통 속에서 피어난 천상의 위로(2)

지난 글에서는 Ave Verum Corpus의 가사와 함께, 성체 안에 담긴 강생과 수난, 그리고 성사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찬미가가 왜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신자의 마음 안에 깊은 위로로 남아 있는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찬미가의 가장 큰 특징은, 성체를 단순히 ‘영광의 신비’로만 노래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십자가의 고통과 상처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그 안에서 드러나는 사랑을 조용히 노래합니다.

“Vere passum”  
“참으로 수난하시교”

이 짧은 표현 안에는 교회의 깊은 신앙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난은 상징이나 비유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실제로 겪으신 고통이었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사랑이 오늘도 성체 안에서 계속 우리에게 전해진다고 믿습니다.

이어지는 “찢린 옆구리에서 물과 피를 흘리셨도다”라는 구절은, 십자가 위에서 흘러나온 사랑의 신비를 보여줍니다. 교회의 전통 안에서 물과 피는 세례와 성체성사를 상징하며, 그리스도의 희생 안에서 교회가 태어났음을 드러냅니다.

특히 이 찬미가가 많은 이에게 깊은 위로가 되는 이유는 마지막 부분에 담겨 있습니다.

“Esto nobis praegustatum in mortis examine”  
“저희가 죽을 때에 미리 맛보게 하소서”

교회는 임종 중에 모시는 성체를 ‘노자(路資, Viaticum)’라고 부릅니다. 이는 ‘길을 위한 양식’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이 마지막 여정을 걸어갈 때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신다는 믿음이 이 짧은 기도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Ave Verum Corpus는 죽음을 두려움으로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체를 통해, 고통과 죽음을 넘어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이 찬미가의 음악은 매우 단순하고 절제되어 있습니다. 특히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Ave Verum Corpus는 화려한 기교보다 부드럽고 맑은 선율 안에서 깊은 평화를 전해 줍니다. 조용히 흐르는 화성과 긴 호흡의 선율은, 마치 성체 앞 침묵의 기도를 음악으로 옮겨 놓은 듯합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슬픔을 억지로 지우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고통 속에서도 우리 곁에 머무르시는 주님의 현존을 조용히 바라보게 합니다.

성체 앞에 머무는 시간은 모든 아픔이 즉시 사라지는 순간이 아니라, 그 아픔 속에서도 결코 혼자 아픔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Ave Verum Corpus는 그 믿음을 가장 고요하고 아름다운 방식으로 우리 안에 들려줍니다.

신혜순 데레사 연주학박사(지휘)

## 2026년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 담화 한반도에서 “무기를 내려놓게 하는 평화”를 만들어 갑시다



담화 전문 보기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한반도의 갈등이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미움을 화해의 길로 돌리는 데는 그보다 더 많은 사람의 관심과 지혜와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길이 쉽지 않다고 해서 물러서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고, 그리스도께서 맡겨 주신 사명 곧 평화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올해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에는 어렵고 힘든 문제보다 단순하지만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구체적 조치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남북을 가로막고 있는 불신과 적대감이 더욱 낮추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이러한 기도와 노력은 남북 사이에 ‘무기를 내려놓고, 무기를 내려놓게 하는 평화’를 이루어 줄 것입니다.



## 교구 기관 및 본당 공동체 소식

### 공세리본당 성체거동



공세리본당 성체거동이 6월 6일(토) 공세리성당(주임 신성수 신부) 일대에서 총대리 한정현 주교 주례로 거행됐다. 성체거동미사 봉헌으로 시작한 이번 성체거동은 사제단과 공세리본당을 비롯해 전국에서 참여한 교우들이 함께했다.

### 첫 영성체 예식

판암동본당(주임 이상욱 신부)은 5월 30일(토) 3명에게 첫 영성체 예식을 거행했으며, 이어 6월 7일(주일) 온양풍기동본당(주임 양희창 신부)은 6명, 천안두정동본당(주임 이용호 신부)에서 10명의 어린이가 첫 영성체 예식을 거행했다.



▲ 판암동본당



▲ 온양풍기동본당



▲ 천안두정동본당

### 성모의 밤 행사



원신흥동본당



홍산본당



배방본당



천안구룡동본당



공세리본당



세종성베드로본당



공주교동본당



성환본당



관저동본당



둔포본당



가양동본당



ECCE

보라, 하느님의 창조세계를 함께 바라봅니다.

에코체크 다운로드  
오른쪽 QR코드를 이용하세요 ▶



아이폰용



안드로이드용

### 대천본당 유아세례식과 천안구룡동본당 세례식



천안구룡동본당(주임 이정욱 신부)은 5월 24일(주일) 성령 강림 대축일 미사 중 13명의 예비자가 세례식을 통해 하느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다.

대천본당(주임 권선민 신부)에서는 6월 6일(토) 유아 세례식(9명)이 있었다.